활동지 구성 박지선 그림책 놀이 기획자

사회관계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아이의 여행

바로의 여행

국지승 그림책 | 창비 2022

자신의 바람대로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이 세운 틀에 아이가 따라 주기를 희망하는 어른들과 그 기대에 맞추느라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 『바로의 여행』은 재미난 이야기 속에 현실의 문제를 담아낸 그림책이다. 그림책작가 '다영 씨'와 그가 지은 책 속 주인공 '바로'를 통해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건강한 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책 속 주인공이 작가의 이야기를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소동을 통해 바로와 다영 씨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바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 갈수록 다영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영 씨 역시 바로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바로의 행복을 설계하려고 애쓰던 다영 씨가 바로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바로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의미 있게 그려진다. 한껏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유년기 독자부터 아이와 함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성인 독자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주인공 되어 보기

바로는 다영 씨가 정해 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바로처럼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만의 여행 떠나기

바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 갈수록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